

# 아놀드의 갈등 구조

- 「1853년 서문」 중심으로 -

김 선 회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차 례

1. 서 론
2. 빅토리아 시대의 정기간행물의 성격과 아놀드의 고전성
3. 「1853년 서문」 중심으로 나타나는 아놀드의 갈등
4. 결 론

## 1. 서 론

빅토리아 시대는 신앙과 의혹, 발전과 쇠퇴, 위선과 충실, 온갖 형식에 대한 순응과 불만 등 두 가지로 양분화되는 시대였다. 종교적 갈등은 정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시대를 대표하는 동시대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상반된 충동에 이끌리는 모순을 보여 주는 시대였다 (Jenkyns 70). 이와 같은 갈등은 “하나를 죽어버리고, 다른 하나는 힘이 없어 태어나지도 못하는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한다”<sup>1)</sup>라는 아놀드의 유명한 시귀절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아놀드를 포함한 빅토리아인들의 선택의 위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 참고: “Stanzas from the Grand Chartreuse” in *Arnold Poems Selected* by Kenneth Allott, (Middlesex:Penguin, 1985), p. 206.

아놀드(Matthew Arnold)도 이런 양극적인 두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빅토리아인들이 겪었던 갈등구조의 파라다임에 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라다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놀드는 상반되는 두 가지 원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양극적인 것 중 어느 한 면에 자신을 통합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그는 서로 대립적인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나타나는 아놀드의 분열의 양상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교양과 무질서, 문학과 과학, 문학과 교리 등으로 그 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상반되는 것들은 아놀드의 변증법적인 기질에도 불구하고 서로 타협하지 않아, 아놀드 스스로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아놀드의 이와 같은 선택의 위기, 즉 갈등의 근원은 그가 문학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자아를 찾으려고 했으나, 주위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아놀드는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에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의식하게 되면서, 내면의 자아를 거부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 이것은, 크래머(Dale Kramer)의 지적처럼, 적어도 양극적인 삶에 관하여 아놀드가 정직하게 표현한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17), 초기 시에서 자신에 열중할 수 있었던 아놀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자신에 충실할 수 없음을 기인되고 있다. 물론 아놀드가 이런 갈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에 충실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 충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대적 사명감에서 우러나온 아놀드의 충실성은 아놀드의 문학, 특히 그의 비극적인 갈등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다.

대략 비극의 일반적인 정의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또는 서로 모순되는 힘들의 개념에 근거를 둔다. 이 개념은 크래머의 지적에 의하면, 19세기의 헤겔(Hegel), 니체(Nietzsch), 브래드리(Bradley), 그리고 오늘날의 크리거(Murray Kriegar), 존 파렐(John Farrel)등의 이론을 의미하는데, 아놀드의 양분화된 충실성도 이 정의에 속한다고 볼 때, 도덕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내면

의 지식에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빅토리아인들의 분리감을 설명하는 데는 이 19세기의 비극의 개념, 즉 감수성과 이성의 분리라는 개념이 적용된다(Kramer 18).

아놀드는 당대의 주요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상의 현실 적용이라는 문제에 평생 고심한 비평가이다. 그는 당대의 문제들이 생전에 거부될 수 있음을 인식했는데, 이런 저항이 아놀드에게는 거부와 재평가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아놀드는 비평가로 활동함에 따라 사상이나 행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인식하여 도덕, 종교, 정치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점차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은 실리적이면서 철학적 표현을 멀리하여 “진정한 인문주의는 과학적이다”<sup>2)</sup>라고 「문학과 과학」(The Literature and Science)에서 주장하는 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고전 교육은 과학적 훈련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과학에 유입되어 몰입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아놀드가 주장하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아놀드는 낭만주의를 경시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자기 몰두에 대한 감수성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들이 바로 비평가로서의 아놀드의 비극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갈등은 빅토리아 시대의 지성인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선의 사상을 양쪽에 유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아놀드의 의식은 오히려 그의 문학활동을 방해했으며, 지적인 면에 있어서 빅토리아 시대의 개혁의 흐름의 고삐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Kramer 19). 그러나 아놀드가 동시에 이분법적인 두 가지에 충실했다는 사실은 빅토리아 시대라는 환경과 개인적 능력의 한계성과 설득력을 감안한다면,

2) Matthew Arnold, *The Complete Prose Works of Matthew Arnold* Vol. X, Ed. R. H. Super.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5), p. 57.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권수와 쪽수를, 그리고 아놀드의 편지에서의 인용은 책 제목과 쪽수를 본문에 표기함.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양극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강조하는 아놀드의 방법은 매우 수사적이며, 그의 이런 반응은 당시의 문화적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적 조건은 광범위하지만, 여기서는 당시의 정기간행물의 성격과 아놀드와의 관계를 고전성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1853년 서문」(The 1853 Preface)의 배경을 중심으로 아놀드의 내면의 갈등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빅토리아 시대의 정기간행물의 성격과 아놀드의 고전성

빅토리아 시대의 1840년대와 1850년대의 정기간행물에 나타나는 양극적인 대립의 양상은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범위를 국한시키면, 고전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그 중 하나가 고전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세익스피어적, 키츠적인 낭만적인 것이다.

고전적인 관점은 당시 간행물에서도 대대적으로 강조되었듯이, 학교의 교과 내용<sup>3)</sup>과 보수적 경향의 잡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별히 그리스의 극작가들, 유티피데스(Euripides), 아킬레스(Aeschylus)등이 당대 작가들의 표준으로 강조되었는데, 이는 당시 대부분 평론가들이 결단성이 부족한 문단의 언어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고전이 중시된 까닭은 정기간행물이 생존하지 않는 과거의 작가를 전형으로 활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시 정기간행물이 잡지에 실린 고전극들을 통해서 중산층에게는 대중매체로 이용됐으며 하층민에게는 교육의 효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간행물들은 아킬레스, 소포클레스, 유티피데스의 극을

3) 그리스 정신에 관한 교육 방침의 한 예는 아놀드(Thomas Arnold)에 의해 시도된 학습 내용으로도 알 수 있다. 무려 주당 28시간중 20시간이 고전 학습에 할당되었으며 럭비 경기조차 자기 희생, 약속의 실행, 명예의 가치 등 그리스의 정신적 가치를 재도입하려는 목표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개관해 주는 자습서 역할을 했으며, 이처럼 그리스의 연극의 전형이 중시되는 경향은 빅토리아 시대의 초기와 1830년대, 40년대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문인들은 시대의 도덕적 요구 사항을 회피할 수 없었으며, 시인들도 창조적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그 속에서 도덕적 가치의 근본을 찾으려고 한 결과, 고전적인 인물들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고전주의에 관한 새로운 사상과 훌륭한 작품에 대한 열린 마음은 빅토리아 시대의 저널리즘의 한 양상이었다. 예를 들면, 논평가들은 비교적 혁신적이었는데, 도덕성을 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의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잡지에서는 그리스 고전 작가들과의 도식적인 비교가 아니라, 당대의 시인과 소설가의 정신, 그리고 극 작품과 시 속에 담긴 사상이 높이 평가되기도 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문인들은 과거의 문학 세계가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보다 더 고상하다고 느끼면서 과거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었다. 낭만주의는, 비어(John Beer)의 지적에 의하면, 정서적 메마름에 대한 반발이면서 정신적 안정감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vii), 이와 같은 낭만적 경향은 특히 셰익스피어와 극 중의 인물들, 언어, 이미지리 등을 찬양하는 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셰익스피어가 균형감없는 혼돈 속에서 신의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본보기로 강조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빅토리아 시대의 낭만적인 특성은 문단의 언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아놀드가 시작 활동을 할 때, 지나친 낭만적 경향(Spasmodic Poetry)의 시가 당시 문단을 휩쓸었다. 특히 1839년 이런 경향의 시(*Festus*)가 출판되어 그 시대의 회망의 시로 인식되었으며, 이 시를 쓴 베일리(Philip Bailey)는 제 2의 키츠로 각광받게 될 정도였다. 그리고 스미드(Alexander Smith)의 시 또한 인기를 누렸고 비평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런 낭만적 경향의 시를 극찬하거나 비난하는 평론가들

은, 그 중요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시어의 비규칙성과 비제한적인 열정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놀드가 「1853년 서문」에서 주장하는 논지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당대 문인들이 따라야 할 귀감은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고대인이며, 키츠는 그리스 작가들의 특징인 전체성을 중시하지 않고 표현을 강조하면서 19세기 낭만적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작가라고 아놀드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당대의 다른 시인들은 아놀드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시를 지어냈다. 부라우닝(Robert Browning)은 객관적 진리보다 제한된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더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테니슨(Alfred Tennyson)은 직관적인 상상력의 진리를 믿으면서 시를 발표했다. 아놀드가 낭만주의 전형을 수용하지 못한 까닭은 시인으로서의 아놀드가 시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지만(Riede 26), 아놀드는 인식론의 전환기적 입장에서, 의미없는 언어의 망각과 엄격한 경험론의 진실성 사이에서 낭만주의 시가 주는 망각의 위안을 받아 들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아놀드는 경험론적 이성주의로 문학의 도덕적 효용성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목표는 시가 비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Riede 27). 즉 최상의 시는 항상 도덕적 의미를 불어 넣으려고 한다고 아놀드는 자각했다. 가장 진실된 언어가 과학적이듯이, 언어는 진리를 표현해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놀드로서는 언어의 힘에 대한 확신과 언어가 미치는 방법에 관한 회의를 물리칠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확실하게 자신의 언어 이론을 정립시키지 못한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인 아놀드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즉 아놀드는 시의 유용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갈등을 느꼈으며, 그럼으로써 시어의 유용성에 대한 불확신은 아놀드에게 혼란을 가져와, 이로 인하여 그의 시에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은 현대 시인의 곤경의 처지라는 파라다임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놀드 역시 불확신과 혼란, 신념의 상실이라는 빅토리아 시대의 격동기의 어두운 평야에서 살았던 현대의 시인이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격동의 시대가 주는 어려운 입장은 시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으며 문인들도 시대의 논쟁거리와 무관할 수 없었는데, 특히 시대가 낭만주의와 고전주의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는 인식은 당대의 주된 논쟁거리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1848년의 혁명에서 야기된 격동으로 문학에 있어서 안정의 상실성이 한탄되기도 했다. 이에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 곧 이해할 수 있는 지성과 안정이 우선시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시대는 사회의 무질서, 저속성, 물질주의, 허무주의에 대처할 질서, 아름다움, 이상의 세계를 요구했으므로, 아놀드가 주장하는 그리스 정신은 꼭 필요한 하나의 신화가 될 정도였다(Stone 301). 따라서 빅토리아인의 삶이 무미건조하다고 염려하여 아놀드가 중요시하는 그리스는 빅토리아 시대가 결여하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지적인 탐구 정신', '의식의 자발성', '아름다움과 지성' 등에 대한 하나의 은유라고 할 수 있으며(Gilmour 43), 아놀드가 강조하는 그리스 정신은 상업주의, 지나친 종교적 열광, 정치적 급진주의, 주관적 도덕성, 사회적 개인주의 등에 맞서서 오랜동안 활용되어온 전통적인 인문적 가치들을 의미한다. 헬레니즘을 도입하는 아놀드의 초점 또한 소포클레스의 즐거움을 통하여 이해, 적정성, 만족스러운 포용성 등에 맞추어져, 이에 그리스 사상의 도입은 아놀드의 창조적 글쓰기와 비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머(Homer)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세상의 다양성의 소유주와 같은 것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놀드에게 그리스 문학에 관한 체험은 통합, 즉 전체성의 달성을 의미한다. 때문에 아놀드는 셰익스피어를 근대시인의 전형으로 추천하는데 주저했으며<sup>4)</sup>, 그 까닭을 당시 정기 간행물의 논평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시 유명한 배심원이면

4) 예컨대 아놀드는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경애하는 시인"(1:9)이라고 찬양하면서도, 이 시의 거장은 영국인의 최초의 안내자이지 최고의 모범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천부적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풍부한 자기 특유의 표현기교"(1:9)를 구사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후배 시인들이 그를 모방하여 세부적 표현은 발전했으나, 구성면에서는 미약하게 되었다.

서 역사가인 엘리슨(Archibald Alison)은 당시의 극장과 관객들의 저속한 수준을 불평하면서, 그리스 비극을 당시 글(문학)에 적용시키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다. 즉, 엘리슨은 셰익스피어가 전체적인 구성의 절제를 무시한데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탁월함의 본보기는 언어의 힘, 생각의 위엄성, 감정의 페이스 등 일치의 법칙을 엄격하게 지킨 그리스의 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뿐, 그 개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엘리슨)에 의하면, 아킬러스는 초기 그리스의 특성, 즉 단순성을 가지고 시간, 장소, 감정의 일치를 지킨 반면, 셰익스피어는 감정의 일치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놀드는 엘리슨과는 달리 낭만적 경향의 시의 장식성이 문학의 당면문제를 저해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시는 몰인정적이며 사실적인 과학적 사고가 신비의 환상을 매마르게 하고 산업혁명의 결과로 강렬한 감정만이 부추겨지게 되었다. 더욱이 해를 거듭할 수록 빅토리아인들은 추해져 갈 뿐이며, 문학마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놀드는 통감했다. 이미 피콕(Thomas Love Peacock)도 「시의 네 가지 시대」(The Four Ages of Poetry)(1820)에서 시대적 여건 때문에 시 쓰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듯이, 그리고 『오로라 리』(Aurora Leigh)(1856)에서도 여주인공이 새로운 시대로 인한 대중의 무관심 때문에 산문을 쓰게 되었다고 불평하듯이, 시 쓰는 창조의 어려움은 아놀드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때문에 아놀드는 그리스 비극을 추천했다. 그는 직접적이면서 감동적인 존재를 갈망했는데, 유리피데스의 시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등은 모두 정신적 불안정의 시대에 창조된 작품들이었으므로, 더욱 그리스를 중시했다. 뿐만 아니라 아놀드는 당대는 극시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서사시는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외적 삶의 생활 양식에서 취해진 형식을 표현하지만, 극형식은 사상과 감정으로 결정되는 인간의 행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중시되었다. 더욱이 당시 그리스 비극은 낭만성에 반감을 느끼면서도 낭만적 경향을 드러내던 당대인들에게 특별한 대안이 되었으므로 중시되었다.



그러나 다른 논평가들은 셰익스피어와 그리스 극작가들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당연히 셰익스피어의 특성을 더 선호하였다. 예를 들면, 드킨시는 빅토리아 시대와는 다르게 그리스 극이 배출되는 특별한 조건을 열거하였다. 즉, 그리스 극은 인간의 성격의 발전이나 열정의 표현이 아니었으며 극장 또한 너무 넓으며, 뿐만 아니라 극은 지나치게 짧고 가면을 쓴 배우들은 자신의 감정의 이면을 드러내는 것조차 금지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어떤 위대한 정황, 즉 자기 갈등이나 발전되어가는 열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국면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드킨시에 의하면, 물리적 연출이 강화되는 특질들은 그리스 극에서 비극의 기초로 인식되고 있는 인간의 삶의 실제에 관한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sup>.

물론 이와 같은 문단의 반응은 빅토리아 시대의 비평의 예에 불과하지만, 아놀드로서는 무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아놀드로서는 자신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긴장은 경험적인 것이기에, 명확한 판단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후에 전통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지지이며 시인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메롭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1853년 서문」에서 시대에서 비롯되는 총체적 위기감의 대안으로 자신의 사상을 그리스로 전환시켰던 것이다(Jenkyns 102). 때로 보편적 질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아놀드의 불안은 내면의 나약함을 감추려는 위장술일 수도 있다(Jenkyns 267). 그러나 아놀드로서는 이상에 따라 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엄격함으로 통제했으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적 본능을 억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아놀드의 글을 타자를 지위버리거나 억압하는 보편적인 전략의 일부로 볼 때, 아놀드가 빅토리아 사회에 그리스 정신을 도입하려고 한 사실은 아놀드 스스로 근대적 삶에서 고대 사회로 한발 물러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월러스(Jennifer Wallace)의 지

5) 참고: Thomas De Quency, "Theory of Tragedy", *Blackwood's Magazine* 47(1840), pp. 145-53.

적에 의하면, 그리스로의 아놀드의 사상 전환은 어려움을 용의주도하게 근절시키거나 억압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302).

뿐만 아니라 「1853년 서문」에서 아놀드는 순응의 감정을 보여주는 그리스 비극의 침착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형식적 구성의 엄격성을 중시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Jenkins 99). 더욱이 이미 비평가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 「1853년 서문」은 자신의 시에 대한 변호이면서 단어와 구절의 반복적 사용,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아이로니, 가끔씩 쓰는 과장법 및 독단적인 어조 등으로 이미 당시의 논평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도 남았다. 즉 그 때까지의 아놀드의 시의 엄세적이면서 절망적인 우울한 색조의 경향과는 다르게, 아놀드가 고전주의 사상을 발표했으므로 논평가들은 더욱 아놀드의 1853년 이전의 시집을 혹독하게 비평했던 것이다.

### 3. 「1853년 서문」 중심으로 나타나는 아놀드의 갈등

지금까지 분석했듯이, 고전적, 낭만적 특성을 지지하는 평론들 가운데서 아놀드와 「1853년 서문」이 당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떤 성격을 띠는지 분명해진다. 주지하다시피 변천기의 시대적 여건으로 인해 아놀드로서는 주관적인 성격을 통합하고 혼란스러운 바깥세상을 정돈하여 자신과 그밖의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대체적으로 아놀드는 정기간행물에 평론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당연히 세간의 평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음성이 어떻게 사용되든지 또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빅토리아인들이 공통으로 느꼈던 갈등을 겪었다.<sup>6)</sup> 때문에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는 행위에 있어서는 해방감을 제공하지만, 고통과 시인을 분리시키지 못한 이유로 1853년의 시선집에서 제외되었다. 아놀드에 의하면, 그리스 제재와 주

6) 아놀드의 불확신이 반영되는 시로는 1844년의 "Night comes..."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아놀드가 우울한 특성을 보여주는 그의 초기 시들을 통하여 동시에 안정과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아놀드적이라 할 수 있다.

계는 당대에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보편적 호소와 초연함을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는 반면,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는 고전적인 통합의 성취에 관한 아놀드 내면의 불확신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아놀드는 엠페도클레스의 상황이 시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여 시를 삭제한다고 설명하면서, 서문의 내용과 시와의 관계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 속에서 엠페도클레스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애매하고, 서문 또한 얼버무리기와 모호성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마치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는 ‘대중의 희생양’(Dietrich 313)처럼 삭제된 것이다. 즉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가 극단적인 주관성과 자아 의식의 한계를 진단하는 반면, 「1853년 서문」은 객관성과 엄격한 고전주의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듯이, 아놀드는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의 문제점을 대조적인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의 관계는 사물을 양극단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아놀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주는 본보기로 볼 수 있다<sup>7)</sup>.

물론 아놀드가 교훈적 문학과 도덕적 교화적인 작가에 관한 반감을 표현한 바 있듯이(*Letters to Clough* 59), 1853년 무렵의 아놀드는 규칙의 엄격성을 지키는 단호한 면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를 용납할 수 없는 아놀드 내면의 엄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문학을 이론화하려는 경향이 아놀드의 내면에 자리를 잡을수록, 점차 이 문학의 이론화때문에 미학적 순수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엄격성은 형식화하려는 내면의 경향 속에서 아놀드가 어느 한 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문학의 전반적 비평을 형식화하려는 욕망과 동시에 그런 소망을 억제하려는 내면의 긴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7) 아놀드는 사물을 보는 자신의 대립적인 방법에 관하여 클라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성품에 관하여, 사물을 보는 뚜렷한 내 방식”이라고 말한 적 있다. 참고: *Letters to Clough*, p. 110.

즉 이것은 아놀드가 '전반적인 시'에 관한 자신의 생각, 즉 일반적 비평과 아놀드 자신의 시 사이에서 비롯되는 긴장 및 갈등을 자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실은 아놀드가 1849년 이미 '보편적인 시'를 이론화하고 싶은 욕망 속에서 시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Unpublished Letters* 17), 개혁자로서의 아놀드의 감정은 시의 문제에 관해서도 「1853년 서문」의 주장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엠페도클레스의 감정에 대해서도 몰두했음을 함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53년 서문」이 이처럼 수년간의 숙고 끝에 발전된 것인데도, 아놀드가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를 거부하기 이전에 제한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의 이중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아놀드는 근대적인 제재와 이 근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한 시대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동시에 고전적 제재를 추천할 뿐만 아니라, 독자를 즐겁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어 줄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놀드가 다소 현학적인 서문의 내용과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에 대한 반박, 그리고 서문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몇 편의 초기 시들을 함께 실어 1853년의 시집을 출판한 점 등은 “단호한 아놀드의 태도로 비추어 볼 때, 모든 불확신을 위장하려는 노력”(Dietrich 323)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단면이 된다. 즉 아놀드는 제재의 부족함 때문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실패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시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면서 애매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아놀드가 「1853년 서문」을 통해 객관성과 엄격한 고전주의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의 문제를 대조적인 방향에서 풀어 보려고 모색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Dietrich 313).

물론 서문의 내용과는 대조적인 아놀드의 낭만적 특성은 아놀드의 초기 시에서부터 발전된 것이지만, 이처럼 아놀드의 내면의 대립적인 두 가지 성격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공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즉 철학적 명상과 분석이라는 당혹스러운 비평 정신이 요

구될수록, 평온과 평정의 이상을 지니려고 하는 긴장이 아놀드의 초기 시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절망의 희생양으로서 엠페도클레스는 사상과 감정의 양극단에서 지적 활동의 변화를 이해하는 언어를 다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엠페도클레스는 정신의 당혹스러운 동요와 정신의 또 다른 능력과 통합되는 활동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아놀드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서문은 아놀드가 자신에 대한 유용성과 개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의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놀드의 당시의 모습, 즉 내면으로의 몰두, 고독, 초연함과는 달리 그 반대로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세상일에 개입하는 것 사이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아놀드의 성향은 익살과 진지함, 꾸밈없는 솔직함과 시치미떼는 위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성향들은 아놀드의 초기 시들이 드러내는 특질들이지만, 아놀드는 고독과 초연함을 더 즐기면서도 엠페도클레스처럼 고독한 초연함이 시대정신에 적당하지 않음도 의식하였다. 특이한 사실은 엠페도클레스가 시대를 비난하면서도 그 갈등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한 점인데, 아놀드 역시 당대의 역사적 긴박한 상황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엠페도클레스는 문화와 의식 사이에서 어려운 공간이라는 뜻에 걸린 아놀드의 퍼스너(persona)로서 정신의 압제 앞에서 죽음을 선택한 반면, 「1853년 서문」은 유용성을 위하여 지성에 굴복한 것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Longenbach 848). 이처럼 아놀드는 제재의 선택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이중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즉 그는 근대적인 제재와 제재의 근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한 시대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전적 제재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독자를 즐겁게 하고 활기를 넣어 주는

8) 아놀드는 어린 시절부터 분열되는 성격을 드러냈다. 일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진지함과 적극적이면서 참을 수 없는 욕망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한편, 감정이 자주 변하고, 변덕스럽고 때로는 우울과 권태에 빠져버리는 낭만적 시인의 소극적 기질을 지녔다.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아놀드는 고통이 행위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시적 즐거움도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를 삭제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행위의 탁월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에 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행위의 탁월성 이면에는 아놀드의 긴장과 의혹이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윌러스가 지적하듯이, 아놀드에게 있어서 고전의 번역, 즉 고전의 내용을 극시로 다시 지어내는 일은 이미 그 내용이 약정된 것이므로, 자신을 회피하거나 기만하는 과정이 내포되고 있을 뿐이다(302). 그런데 아놀드는 어려운 시대에 정신을 지탱하게 해주는 구원 방안으로 호머, 소포클레스 등을 중요시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내적 통찰이라는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이 점은 「1853년 서문」(1:8-9)에서 '탁월한'(excellent)이라는 단어를 세 번 반복하여 쓰는 가운데 자신을 굳건히 다지면서 과거의 남성다운 정신, 특히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영국민들에게 주입시키기를 아놀드가 희망하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이다. 이렇게 자신을 굳세게 지키는 일은 「1853년 서문」의 경우, 자신에 대한 옹호 행위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역경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엠페도클레스의 번역을 통해서 아놀드가 남성다운 힘을 인식하는 것은 윌러스가 지적하듯이, 그 자체가 뭐라 할 수 없는 치유 효과, 다시 말하면, 안도의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동시에 아놀드가 내면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303).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놀드가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를 거부한 사실은 엠페도클레스라는 인물이 아놀드의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Longenbach 848). 비록 활력을 상기시키면서 새롭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비어도 지적하듯이, 아놀드 내면의 행위에 대한 영향의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99). 그러므로 엠페도클레스의 목소리에는 아놀드의 극적 긴장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Longenbach 848).

뿐만 아니라 행위의 탁월성과 관련하여 아놀드는 부라우닝에게서 볼 수 있는 활력에도 관심을 가졌다<sup>9)</sup>. 그러나 시대 자체가 활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놀드는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를 쓰게 된 데서 오는 갈등을 지울 수 없었다. 때문에 이렇게 활력에 관심을 표명하는 제한된 입장을 취함으로써 아놀드는 행위에 관한 당시 비평가들의 해석을 거부했던 것이다 (Dietrich 323).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놀드는 「1853년 서문」의 주장을 더욱 의미있게 하려고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는 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놀드 스스로 책임감을 다지기 위해서 자신의 낭만성을 회생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달리 말하면, 시 쓰기에 대한 아놀드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욱 시가 삭제된 이유는 왜곡되었으며, 서문과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의 관계 또한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더욱이 이 서문을 통해 아놀드는 1853년까지의 자신의 시적 발전의 성격과 방향을 은폐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독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기준없이 1852년의 시집에서 몇 편의 시를 골라 1853년의 시집에 끼워 넣었듯이, 이것은 자신의 시에 대한 불확신을 감추기 위함이며 또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를 반박함으로써 동시에 서문의 주장을 공고히 하려는 아놀드의 이중적인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 쓰는 창조에 대한 아놀드의 불안<sup>10)</sup>은 그의 초기 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시에는 자취를 감추었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

9) 참고: *Letters to Clough*, Ed. H. F. Lowry, (30 Nov. 1853), p. 146.

10) 아놀드의 창조에 관한 불안은 그의 산문에서는 '현재의'(current)라는 어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의 문학이 다루는 모든 면에서의 최선의 사상"(III: 260)에서 창조력이 사상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아놀드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재능있는 시인이 현재의 확실한 사상을 소유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III: 260)라는 주장에서도 '현재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다. 또 소포클레스에 대한 언급 속에는 자유로운 창조 활동에 대한 아놀드의 불안이 숨겨져 있다. 참고: John Beer, *Romantic Influence*, p. 101.

놀드가 주관적 내적인 삶과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 사이에서 오는 분리감의 갈등을 의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Beer 100). 즉 내면적인 은밀한 삶의 이미지로 묘사되는 흐르는 물의 모습은 개인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는 아놀드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의 시에 나타나는 흐르는 강물처럼 절실함에 대한 간절한 의식은 아놀드에게 긴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놀드는 시 쓰는 방법을 충고하고 19세기의 시의 이론을 구축하고 싶었으나, 산업사회라는 근대에서는 시를 쓰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예견하였다. 「현시기 비평의 기능」(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에서 비평만이 이 시대에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시의 적정한 어조와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아놀드로서는 당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특이한 점은 아놀드는 독자들에게 그 당시까지도 그의 특성이라 할 수 없는 도덕적 협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문학의 효과를 중요시여기는 아놀드로서는 당연히 낭만적 경향의 시보다는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는 그리스 문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른다. 아놀드만큼 문학의 중요성을 주장한 문인도 드물지만, 그는 당시의 중산층을 위한 유용한 교육적 수단이 바로 문학의 위대한 힘이라고 주장했다.<sup>11)</sup> 다시 말하면, 아놀드는 고양된 감정을 느끼게 하고 도덕적 명상을 유도하는 그리스 문학을 중시했으며, 그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학의 전체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시에서도 엄격한 판단을 적용시켰다.<sup>12)</sup> 그러나 근대의 혼란스러운 경험을 이해

11) 문학의 효용성에 관한 아놀드의 주장에 대해, 엘리엇(T. S. Eliot)은 “아놀드는 시가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있는 그대로의 시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참고: T. S. Eliot, *The Use of Poetry and the Use of Criticism* (Faber & Faber, 1933), p. 118.

12) 1852년 클라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놀드가 현대시는 종교의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부품적, 에피소드적, 장식적 작품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참고: *Letters to Clough*, Ed. H. F. Lowry, p. 124.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의미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로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실제 아놀드는 '정신의 대화'(dialog of the mind)로는 당대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음을 인식했다. 이것은 아놀드 스스로 옴페도클레스의 이미지의 힘을 과소 평가하고 시가 제공하는 위안, 지지, 완성·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억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 아놀드는 시인으로서의 어려움은 자신의 시와 시인 내면에 나타나는 다양성을 조절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실토하기도 했으며<sup>13)</sup>, 리드(David Riede)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아놀드 스스로 자신의 시를 분석한 결과이기도 하다(31).

그러므로 「1853년 서문」은, 쿨링(Sidney Coulling)이 분석했듯이, 당대의 단순한 대변자로 남아 있기를 거부하는 아놀드 자신에 대한 옹호문이다(234).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53년 서문」은 비평가로서의 아놀드의 사상의 모태가 되는 중요한 평론이며 당시 지속되던 논쟁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아이로니와 과장적이며 독단적인 어법으로 당시 지배적인 비평적 관점을 공박하고 있는데(Coulling 233-34), 즉 아놀드는 당시 잡지에 기고했던 비평가들을 겨냥하여 시의 지나친 낭만성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문의 의도는 내면과 무형식의 낭만주의의 경향을 거부하면서, 병적인 자아성찰, 그럼으로써 시의 외적 형식을 소홀리하게 되는 점 등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놀드는 이 서문에서 1849년, 1852년의 자신의 시집에 대한 논평에 응답하고 있으며, 자신의 두 시집에 관한 클라우(Clough)<sup>14)</sup>와 옥스포드 친

13) 아놀드는 1849년 "나의 시는 조각에 불과하다... 나 또한 조각에 불과하며.... 시가 회미하고 우유부단하다"라고 여동생에게 토로하기도 했다. 참고: *Unpublished Letters of Matthew Arnold*. Ed. Arnold Whitridge. p. 18.

14) 특히 클라우는 *North American Review*(July 1853)에서 "Recent English Potery"라는 제목으로 아놀드의 시의 어조가 긍정적이지 않으며 제재 또한 현실적이지 아니라고 비평했으나, 후에 이는 미국의 힘든 생활에서 판단을 잘못내린 비평이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참고: Sidney Coulling, *Matthew Arnold and His Critics*. p. 32.

구들의 반대 의견<sup>15)</sup>에 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다.

동시에 아놀드는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의 삭제에 관한 해명을 통해서 시인의 사명이 협소하게 도덕성, 실용성에 있지 않음도 주장하고 있다. 「1853년 서문」에서 “다양성은 지대하며 필요로 되는 것은 혼란 속에서 시인을 이끌어주는 표현이다”(1:8)라고 설명하듯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권위와 안정이었다. 때문에 아놀드는 모든 낭만적 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낭만성까지도 억압해야만 했다. 그리고 “현재의 방법을 뒤흔들어 놓겠다. 시를 생각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현재의 습관에 반대한다”(Unpublished Letters 15- 17)라고 아놀드가 말했듯이, 이 점 또한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시인 아놀드의 좌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아놀드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창조와 파괴의 끊임없는 과정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연은 풍부함 속에서도 항상 되어가는 것이며(becoming), 세상 모든 것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듯이, 이에 관한 아놀드의 인식은 내면에서 서로 모순되는 충동을 낳고 있다. 즉 이 대립적인 충동은 동시에 영속성과 변하는 유동성, 열중과 초연, 주관과 객관, 구속과 자유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 아놀드의 자아는 불안정과 근본적인 공허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놀드는 “글을 쓸 때의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야”(Letters to Clough 135)라고 1853년 5월 고백하고 있듯이, 카멜레온과 같은 성격<sup>16)</sup>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후에 아놀드는 “시를 비평하는 사람은 최고의 전략, 중용,

15) 아놀드는 친구들에게서 혹독한 비평을 받았다. 클라우(Clough), 마티네(H. Martineau), 그레그(W. R. Greg) 등이 아놀드의 시의 우울한 낭만적 경향을 비평함에, 아놀드는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다. 한편 이런 논쟁 자체가 아놀드 내면에 갈등 및 분리감을 초래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참고: Sidney Coulling, *Matthew Arnold and His Critics*, p. 39.

16) 아놀드는 “상상의 과정이 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다음 있는 그대로의 모든 일을 볼 수 있지만, 비평적 순간에는 나는 큰 뜻을 견어 올려 배가 떠내려가도록 한다”라고 스스로도 견장을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과 불확신을 고백하고 있다. 참고: *Letters to Clough*, p. 110.

자유로운 융통성 그리고 신축성있는 상상력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몽테인처럼 끊임없이 물결치는 듯한 다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CPW 1:74)라고 지적하면서, 이 케멜레온 성격을 이상적인 비평가의 성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중성과 분리감은 빅토리아 시대 문학의 공통된 특질이기도 하지만, 아놀드에게는 자아 반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는 항상 자신을 여러 자아, 다시 말하면, 최선의 자아, 보통의 자아, 내면의 자아, 위장된 자아로 나누고 있는데, 이 자아들은 아놀드가 자각했던 언어의 부적합성, 그리고 자신을 파고 들어가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있으며, 또 무엇이 부족한가를 표현 할 수 없는 무능력에서 비롯되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Ryals 68).

그러므로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에 관한 모든 것은 당시의 아놀드의 어려운 곤경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평가들과 친구들이 아놀드의 시에는 과거라는 제재때문에 직접적인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했던 사실과는 달리, 아놀드는 이런 변명을 통하여 그 반대로 의도적으로 시에 나타나는 근대성을 역설적으로 돋보이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와 근대의 과학적 사고 방식은 서로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까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학의 시대에 시가 가능한가에 관한 의문까지 함축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는 19세기를 반영하는 현존하는 훌륭한 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 시가 지닌 총체적 실패가 바로 성공을 가져왔듯이, 그리고 이 시가 지닌 과거의 제재와 근대성처럼, 아놀드의 양극적인 사고의 공존 또한 오늘날의 아놀드를 낳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놀드의 삶에 양극적 모순이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극적 모순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1853년 서문」의 이론<sup>17)</sup>은 만족할 정도로 공식적인 비극적

17) 아놀드의 비극적 갈등의 원인되는 낭만적 특성에 관하여 버클리는 “계속하여 고전적 정신에 의존하면서도 그 사상은 낭만적 전통으로 가득찬 아놀드”라고 지

때는 아니다(Kramer 22). 그러나 당시 아놀드의 일반적인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의 시를 비평하면서 아놀드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아놀드를 화나게 했다. 아놀드 스스로 논쟁을 즐기는 성격이었지만, 아놀드 역시 비난의 희생자가 되었다(Coulling 12). 주로 아놀드를 공격한 논쟁자들은 코울리지(John Duke Coleridge), 맥도넬(James Macdonell), 에이톤(William Aytoun)등인데, 이들 논평가들과 친구들은 아놀드의 고전적 제재와 그 경향에 대해 반복하여 혹평했다. 예를 들면, 킹슬리(Charles Kingsley)는 안티고네의 제재의 필요성을 따져 묻고, 또 빅토리아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되물으면서, 아놀드가 쓸데없이 재능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sup>18)</sup>. 게다가 아놀드의 시는 빅토리아 시대에 비공감적이며 문제 해결의 치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반박이 지배적이었다(Coulling 137).

따라서 이와 같은 혹독한 비난에 아놀드는 자신의 시를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중 가장 실랄한 논평가는 에이톤(Aytoun)이었는데, 그는 아놀드가 독자들에게서 우호적인 호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sup>19)</sup>. 특히 그는 1854년의 시집을 논평하면서 아놀드가 그리스의 단순성을 감탄한 사실에 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그리스 극에는 풍요로움과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코울리지(John Duke Coleridge)는 아놀드의 고전적 전형과 제재를 실랄하게 혹평하였다.

때문에 아놀드는 즉각 자신의 이론을 시에 적용시켰다. 그러나 그의 훌륭한 감동적인 시들은 근대의 개인적 상황을 다룬 것들이며, 또 『메롭』(*Merope*)(1858)은 「1853년 서문」에서 주장했듯

적하고 있다. 참고: Vincent Buckley, *Poetry and Morality*, (London: Chatto & Windus, 1959), p. 25.

18) 참고: Charles Kingsley, "Unsigned Review", *Frazer's Magazine*, (May 1849) in *Matthew Arnold The Critical Heritage Vol. 2, The Poetry*, Ed. Carl Dawson, (London: Routledge, 1995), pp. 41-45.

19) 참고: Sidney Coulling, *Matthew Arnold and His Critics*, p. 38.

이, 소포클레스의 어조를 중시하면서 유리피테스라는 제재를 선택했으나, 아놀드의 목표였던 진지한 즐거움을 표현해내지 못했다. 물론 1843-53년까지 아놀드의 훌륭한 시들은 모두 그가 교육현장에 몸담기 이전에 형성된 사상들로서 시적 영감과 시 이론에 대한 생각들을 발표한 것이지만(Kaufman 125), 동시에 아놀드 내면의 심리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들이다. 즉 이 시기까지의 아놀드의 문학은 자신의 시가 독자들에게 말하는 시로 존재하기를 소망하여 권위의 음성을 내고 싶었지만, 시에서는 여전히 불확신과 공허감만이 남아 있음을 뜻하면서, 아놀드 스스로 내면의 정직성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질서의 홍수 속에서 문화라는 고전성을 지지하려는 시인 아놀드의 성향을 드러내면서, 서로 대립적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하려고 하는 그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놀드의 말대로, '타고난 시인'으로서 영혼 탐색은 아놀드 스스로의 이론 및 이상과 상당히 분리되어 갈등을 초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20)</sup>.

그러므로 리드의 지적처럼, 고대인의 감동적인 효과를 재현하려고 했던 아놀드의 노력은 어쩌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101). 그러나 아놀드가 분리되는 내면과 시대의 다양성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그의 시는 성공을 거둬들었다. 아놀드가 현재의 자신의 시는 자신이 추구하는 미학적, 형식적 완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고백했지만(Riede 204), 그의 시는 고전적인 권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의 주된 정신적 동향을 반영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Letters 2:10). 실제 아놀드가 자신의 시는 절대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 때문에 기억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듯이, 아놀드의 시는 그가 추구했던 시의 이론을 성취시키지 못했다.

20) 아놀드의 분리된 모습을 반영하는 시들로는 "Cromwell", "The Strayed Reveller", "To a Gipsy Child by the Sea Shore", "The Scholar Gipsy"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아놀드는 "The Scholar Gipsy"를 "Sohrab and Rustum"보다 더 선호했지만, 이 시의 우울성한 특성을 의식하여 스스로 이런 편애를 질책하기도 했다. 참고: *Letters to Clough*, p. 146.

따라서 아놀드의 기준으로 그의 시를 평가하면, 「시의 연구」(The Study of Poetry)에서 말했듯이, 그의 시들은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면에서 흥미롭지만 훌륭한 시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아놀드의 이와 같은 실패와 제한된 성공은 빅토리아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아놀드의 지나친 감수성은 항상 전환기의 여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자각에서도 알 수 있다. 시대가 주는 당혹감은 아놀드 시의 현상이 되고, 주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놀드의 언어는, 리드의 분석에 따르면, 그 자체가 방랑하고 끊임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Riede 205). 즉 외양으로는 성공한 듯하지만, 아놀드의 언어는 불확신, 의혹, 동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종의 표류하는 문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때문에 아놀드는 사상의 부조화를 초월하여 진리에 도달하는 권위적인 힘을 부여하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바로 이 점이 아놀드의 시를 역사적 잣대로 만들어 버렸다.

사실 빅토리아 시대의 문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과거가 더 이상 현재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도 기인된다. 그러나 아놀드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전통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다. 더욱이 그는 전통적인 형식을 이용하여 인정된 시의 규칙을 고수하면서 고전적인 형식을 모방하여 위대한 작품의 정전을 규명하고 보존하려고 했다(1:15). 그러나 아놀드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권위의 비평을 회피할 수 없는 점이었다(Riede 208). 전통과 권위는 나란히 놓고 볼 때, 과거와 미래의 중간 지점에 살았던 당대 지성인들에게는 선택의 위기감을 주는 사안이었다. 권위의 상실과 전통과의 단절은 19세기에 비롯된 주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성인들은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으면서도 결국은 전통의 범주 속에 속하게 마련이었다. 아놀드 또한 권위의 상실을 보충하는 것을 평생 노력한 비평가이며 「1853년 서문」은 그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시대의 무질서를 고쳐주는 하나의 지주로 올바른 이성의 권위를 중시했던 것이다.

사실 과학의 시대에 아놀드의 언어 의식은 대상이 우선이고 말은 그 다음 문제였다. 그러나 문학이 항상 세상에 분명하고 강력한 효과를 불러 넣기를 갈망했던 아놀드였지만, 리드의 지적처럼, 그 자체에 밀착된 지식과 무엇이 되어야 하는 문학의 순수한 언어 사이의 갈등은 아놀드에게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26). 실제로 아놀드는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동시에 그리스적 평온을 가질 수 없었으며 또 감정에 있어서 빅토리아 시대적 위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둘 중 어느 한 쪽에도 충실할 수 없었다. 스톤(Donald D. Stone)에 의하면, 아놀드는 독단적이려고 할 때조차, 그런 체계적인 사상에 반감을 가질 정도였다(317). 물론 아놀드의 이와 같은 대립적 양상은 지금까지 분석했듯이, 1853년의 낭만적인 성향의 시집에 부친 서문에서 반영되는 고전적인 특성, 문화와 무질서, 그리고 아놀드 이후의 작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실제 아놀드의 표현대로, 비시적인 시대에는 시대의 요구 속에서 시인이 위대한 행위를 발견했을지라도, 도덕적 위엄이 결여된 시대에는 어려움이 따를 뿐이다. 그러나 아놀드가 시대의 악덕에 물들지 않고 정전이 될만한 시를 쓰려고 노력할수록, 그의 시는 헛된 노력에 불과했고 이론적이 될 뿐이었다. 시가 설득력있는 권위와 종교적 신탁의 기능을 가지려면 한 가지 의미만을 추구해야 하는데, '정신의 대화'는 동요와 불확신을 반영할 뿐이었다. 그러할수록 무엇보다도 시는 종교적 힘까지 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아놀드는 고대인들이 목표로 했던 도덕적 효과의 통합과 심오함 그리고 확신과 안정을 중요시하면서(1:17), 더욱 시의 영역과 규칙적 법칙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다양성을 멀리하고 무질서에 대비하여 단일적인 문화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놀드는 시 형식으로 통합된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가 없었다. 즉 정신적 불감의 시대가 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듯이, 『메롭』의 경우처럼 수단과 방법이 메시지가 되버린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Riede 211), 그 결과 시는 사회에서 분리되

고 종교의 중심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아놀드의 노력은 예술을 위한 예술의 개념이 되버렸다.

아놀드의 이와 같은 대립적 갈등의 양상은 1850년대의 빅토리아 시대의 글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또 그가 진지함과 도덕적 안정에 열정을 쏟지 않고, 개인적, 철학적 균형을 잘 유지했더라면,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 내용이 달라졌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놀드가 그러했다면, 크레머의 지적처럼 『문화와 무질서』(*Culture and Anarchy*), 『문학과 과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사상을 우리는 접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 리비스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25).

따라서 『메롭』(1858)과 『문학의 근대적 요소』(*On the Modern Element in Literature*)(1857)가 출판되면서 『문화와 무질서』, 『문학과 교리』(*Literature and Dogma*)등에서처럼 아놀드의 상반적인 이분법적 특성을 나타냈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다. 비평에 있어서 객관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아놀드가 이성과 신의 뜻에 따르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그는 집중의 시기와 확장의 시기를 함께 인식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헬레니즘의 의식의 자발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헤브라이즘의 양심의 엄격성을 중시하고 있듯이, 사물의 절대적 적합성을 설명해주는 이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시에 도덕성을 종교로 변화시키는 정서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에 의하면, ‘장엄한 문체’(grand style)는 시적 재능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고상한 성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언어의 단순성과 주제의 진지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 또한 아놀드의 분리된 자아가 공존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7년의 강연은 아놀드 생애에 최대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독에 이끌렸다면, 1857년 이후는 초연함보다는 관여, 헬레니즘보다는 헤브라이즘, 단순함보다는 진지함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상반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창하고 있지만, 1857년 이후에는 결국 시대의 요구에 따라 관여, 헤브라이즘, 숭고함, 진지함을 더 중시하고 있다. 물론 시대



가 초래하는 긴박감때문에 아놀드는 더욱 그리스 세계는 이성적이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는 번덕스럽고 유럽은 교육이 되어 있는 반면, 영국은 비평적이 아니라고 뚜렷한 구분을 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에 아놀드가 내면의 불안감에 대해 "사상이 결여되어 있는 영국의 위험성을 절감했다"라고 말했듯이(*Letters I*:129), 당시 문단이 주는 영향의 고통스런 불안감때문에 더욱 내면의 갈등을 느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아놀드는 1863년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서 비평가로서의 목표를 밝혔듯이(*Letters* 186), 이후 비평가로서 활동했다. 그러나 20년 뒤 스윈번에게 자신이 계획했던 루크레티우스의 극을 쓰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토로한 사실에서도 비평가 아놀드의 내면의 비극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 4. 결 론

지금까지 분석했듯이, "빅토리아 시대를 가장 분명하고 왜곡되지 않게 보여주는 거울"(Willy 251)이며 가장 만족스러운 문필가로 평가받고 있는 아놀드조차, 빅토리아인들이 겪었던 갈등구조의 파라다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아놀드는 상반되는 두 가지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분리된 것 중 어느 하나에도 자신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양극적인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아놀드의 갈등의 양상은 감수성과 이성의 분리라는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1853년 서문」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53년 서문」은 1849년, 1852년의 아놀드의 시집을 논평한 평론가들의 반응에 관한 응답이면서 친구들이 언급한 아놀드의 낭만성에 대한 변호이다. 즉 이 서문은 아놀드 스스로 자신의 시를 옹호하는 평론이며 고전적 제재를 선택한 까닭에 관한 설명문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풍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단순한 대변인으로 남아 있기를 거부하는 선언문이다(Coulling 27). 이에 지금까지 분석해 왔듯이, 「1853년 서문」이

전의 아놀드의 시들은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낭만적 우울의 어조를 띠고 있으며, 영문학 사상 최초로 고전을 강조하는 서문 이후 아놀드 내면의 낭만적 음성은 억압되고 있다. 게다가 「1853년 서문」에서도 나타나듯이, 규범적인 표현을 찾으려는 아놀드의 필사적인 노력이 그에게는 긴장과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아놀드의 갈등은 비평가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1861년 “비평을 그만두고 다음 10년간은 시에 몰두하고 싶다”(Letters 1:165)라고 고백한 면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즉 아놀드는 시대가 요구하는 비평가로서의 사명감과 타고난 낭만적 기질의 소유자로서 시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분열이라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분석해왔듯이,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갈 수록 아놀드 내면의 자아에 대한 충실성은 이상과는 점점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 준다. 실제 아놀드 스스로 자신의 시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 쓰기가 산문보다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아놀드 내면의 분열감이라는 갈등의 근원은 「1853년 서문」의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나아가 「1853년 서문」에 나타나는 고전주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시인의 시적 창조에 대한 불안을 회피해가려는 아놀드의 내면적 갈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놀드는 시를 통하여 종교를 구원하기를 소망했으므로, 평생 시에 대한 관심 속에서 권위의 대체물을 추구했다<sup>21)</sup>. 더욱이 그는 신성한 텍스트, 즉 정전이면서 일종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시를 목표로 삼으면서 최선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비평가의 역할을 중시한 비평가이다. 그는 자신의 시가 절정에 있을 무렵, 시대가 낳은 무질서 및 혼란을 치유하기 위하여 권위, 즉 고전을 주창해야 했는데, 최선의 것이란 가장 공평무사해야 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아놀드가 더욱 내면의 자신에 몰두할 수 없었음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가 주는 긴박감과 당시 문단의 경향에

21) 아놀드는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강력한 부분은 무의식적인 시이다”라고 “시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9:161).

서 비롯된 아놀드의 내면의 영향의 불안감은 「1853년 서문」에서 낭만주의를 거부하고 고전 문학을 주장하게 하였으며, 이후 아놀드의 시가 낭만적 색채를 드러냄으로써 더욱 모순적이며 비극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아놀드의 문학에 나타나는 갈등과 욕망 즉, 어느 한 쪽을 선택하거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화시키지 못하는 양상은 아놀드의 또다른 특성이 되고 있으며, 한 마디로 아놀드는 낭만적 아이로니스트의 예술을 보여 주고 있다(Ryals 68).

그러나 오늘날 이런 성격의 시가 지니는 역동성은 포스트모더니스트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듯이(Riede 28), 아놀드의 시의 갈등이 빚어내는 긴장은 그 자체 시의 특성이 되고 있다. 더욱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역동적인 갈등과 긴장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만큼, 「1853년 서문」은 모든 텍스트가 그러하듯이 다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857년의 평론, 즉 「문학의 근대적 요소」가 「1853년 서문」의 연속이며, 이후 아놀드의 평론들의 서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맥락에서, 「1853년 서문」은 시인이며 비평가인 아놀드의 총체적 위기감의 첫 고백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놀드의 시의 총체적 실패가 바로 성공을 가져왔으며 과거의 제재로 쓰여진 그의 시가 현대성을 내포하듯이, 「1853년 서문」에 나타나는 아놀드의 양극적 사상의 공존은 바로 오늘날의 아놀드를 낳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Arnold, Matthew. *The Complete Prose Works of Matthew Arnold* Ed. R. H. Super.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5.
- \_\_\_\_\_. *The Letters of Matthew Arnold 1848-1888* Ed. George W. E. Russell. 2 vols. London: Macmillan, 1895.

- \_\_\_\_\_. *The Letters of Matthew Arnold to Arthur Hugh Clough* Ed. Howard Forster Lowry. Oxford: Clarendon Press, 1932.
- \_\_\_\_\_. *Unpublished Letters of Matthew Arnold* Ed. Arnold Whitridge. New Haven: Yale UP, 1923.
- Beer, John. *Romantic Influenc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3.
- Coulling, Sidney M. B. "Matthew Arnold's 1853 Preface: Its Origin and Aftermath." *Victorian Studies* 7(3) March (1964):233-64.
- \_\_\_\_\_. *Matthew Arnold and His Critics*. Athens:Ohio UP, 1974.
- Dietrich, Manfred. "Arnold's Empedocles on Etna and the 1853 Preface." *Victorian Poetry* 14 (1976):311-24.
- Jenkyns, Richard. *The Victorians and Ancient Greece*. Oxford:Basil Blackwell, 1980.
- Kaufman, William. "A Religion of Sorrow: Arnold's Relation to Comedy" in *Matthew Arnold:Between Two Worlds*. Ed. Robert Giddings. London:Vision Press, 1986:121-37.
- Kramer, Dale. "Incarnate Incoherence:Arnold, Victorian Tragedy, and the 1853 Preface." *Nineteenth-Century Prose* 21(2) Fall (1994):17-25.
- Riede, David G. *Matthew Arnold and the Betrayal of Language*. Charlottesville:UP of Virginia, 1988.
- Longenbach, James. "Matthew Arnold and the Modern Apocalyse." *PMLA* 104(5) (1989):844-55.
- Ryals, Clyde de L. *A World of Possibility*. Columbus: Ohio State UP, 1990.

Stone, Donld D. "Arnold, Nietzsche, and the Revaluation of Values."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43(3) 1988):289-318.

Wallace, Jennifer. "Translation in Arnold's Empedocles." *Essays in Criticism* XLV(4) (1995):301-23.

Willy, Basil. *Nineteenth-Century Studies*. New York: Harper & Row, 1966:251-84.